

[종합·해설]



丁과 鄭... 무슨 생각할까

24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재보선 공천 관련 회동을 앞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하게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23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울복리 선영을 찾아 비석을 매만지며 상념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떨고 있는 정치권

검찰 '박연차 리스트' 고강도 수사 긴장 추부길씨 구속·이광재 의원 사전영장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여야 정치인뿐 아니라 전(前)·현직 정권 실세까지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일단 박 회장의 로비 상대가 주로 전 정권 인사인 점을 감안,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청와대 전직 인사까지 구속되지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반응도 일각에서 나오면서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도 전 정권 인사들은 물론 현 정권 인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까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실시되는 재보선을 겨냥한 '표적·기획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표적사정, 편파수사, 공안탄압 등으로 정치보복을 일삼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다음달 실시되는 재보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모습이 역력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는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기획

담판보단 탐색전... 갈등만 키울 수도

■ 전주 덕진 공천 해법 모색 丁·鄭 회동

"10월 재보선 보장" Vs "무소속 출마 불사"

절충 장기화 가능성... 원로 중진 중재 주목

전주 덕진 공천 문제를 담판 짓는 자리가 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24일 만찬 회동은 원만한 합의점 도출보다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 전 장관에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한데 반해 정 전 장관은 오히려 전주 덕진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 덕진 공천 문제는

진통을 거듭하며 공천 막판까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내 갈등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3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의를 열고 전주 덕진 공천 문제와 관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덕진 공천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 전 장관에 '당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대표는 24일 정동영 전 장관과의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세균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 같은 지도부의 입장과 함께 정동영 전 장관에 10월 재·보선 공천 등 정치권 연합책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이 이 같은 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주 방문 이틀째를 맞은 정 전 장관은 오히려 출마 의지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23일 정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에 무한예정을 갖고 있고, 당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몸 던진 사람이 정동영이었다"며 "이번에 정치를 시작했고 모태인 이곳(덕진)에서 기회를 얻어 원내에 가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덕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

부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전주 시민이 뒤에서 정신적으로 북돋우고 응원해 당당히 정치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를 재개한다는 뜻을 담아 초·재선 시절 사용했던 곳과 같은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를 비롯, 박주선, 장상 최고위원과 김원기 전 국회의장, 문화상 국회의부장, 박상천 의원 등 당 지도부 및 원로들에게 틈틈이 전화를 걸어 귀국인사를 겸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같은 정 전 장관의 행보는 정 대표와의 담판을 앞두고 덕진 출마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4일 회동은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또, 양측은 공천까지 파국을 선언

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차기 회동을 기약하며 시간 벌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정 전 장관 측이 선거구도와 정치적 명분 등을 면밀히 따져보며 막판까지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며 줄다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화상 국회 부의장 등 중진 및 원로그룹의 물밑 중재 움직임이 막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동은 공천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탐색전을 띄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양측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파국의 위기가 고조될 것이며 여론의 향배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DJ "민주당 깨지면 안된다"

鄭 전 장관 오늘 면담 주목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3일 정동영(DY)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 문제와 관련, "가뜩이나 약한 야당 아닌가"라며 "누구를 공천하든 안하든 (당)이 깨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깨지면 공동실패"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원도 아니고 정계를 은퇴한 입장인 만큼 내가 누구한테 나가지 말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그 일로)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며 "내가 깨진다고 한 것은 분당도 있지만 당내 협력이 잘 안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 전 장관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대표와 정 전 장관간 단독 회동 하루 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은 24일 오전 동교동 사저로 김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이 그의 덕진 출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6·15, 10·4 선언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국무총리를 북한에 특사로 보내 진의를 설명하고 정상회담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적으로 만나면 (대북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대통령 "복지예산 횡령 용서 못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잇단 복지 지원금 횡령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예산집행 시스템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실시된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요즘 각종 감사 결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지원금을 일부 공무원이 뒷주머니에 넣었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것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자서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

는다"고 재차 성토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격노한 것은 공무원들의 복지 지원금 횡령이 경제 위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할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이날 복지예산 횡령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추징하고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복지담당 공무원의 순환배치를 통해 비리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

중기 애로사항 청취

하남공단서 간담회

강운태 의원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 무소속)은 금융위기와 고유가 및 고환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5일 오전 10시 광주 하남공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중소기업청 등) 및 유관기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주)무진기업·(주)한국정밀·(주)신풍 등 10여개 중소기업체 등이 참석한다. 강 의원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방문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중앙에 전달·건의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7.9급 공무원 전직렬' (7.9 grade civil servant full series) by 'www.mdgosl.co.kr'. It features a large '7.9급 공무원 전직렬' headline, a list of exam subjects including '국문,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헌법, 정치학, 인사법, 소방법, 보건법, 상사, 기타', and contact information for 'www.mdgosl.co.kr' and '222-4560'.

Advertisement for '경찰 메가경찰학원' (Gyeongchal Mega Police Academy) by 'www.gmega.co.kr'. It highlights '수시접수중 (종합 및 문제풀이)' (Application open for comprehensive and problem-solving courses) and lists exam subjects like '전국 최고의 교수진' (National top professors) and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Guaranteed pass! Professional system, Director An Myeong-seop). It also lists exam dates and fees, such as '6개월 과정' (6-month course) and '1년 과정' (1-year course).

Advertisement for 'STPIE 국제교류전문인력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STPIE International Exchange Specialist Training Project for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 Recruitment). It includes a table with details: '교육내용' (Education content) including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 management, and English; '교육기간' (Education period) from April to September; '교육인원' (Education personnel) up to 30; '지원자격' (Application requirements) including university graduates and English proficiency; '접수기간' (Application period) from March 20 to April 4; '전형절차' (Application process) including application and interview; '합격자 발표' (Passing candidates announcement) by April; '제출서류' (Documents to submit) including application form and recommendation letter; '수강료' (Tuition fee) 600,000 KRW; '접수' (Application) via website; and '문의' (Inquiry) via phone and email.